광주 성덕고 'n차 감염' 지속…여수 요양병원서 13명 확진

성덕고 누적 확진 24명·자가격리 1235명…광산구 89개 학교 원격수업

여수·고흥 중심 전남 확산세 불안…전국 하루 500명대 곳곳 집단감염

광주 성덕고 학생들의 집단 감염과 관련한 n차 확진이 이어지면서 1000명이 넘는 접촉자들이 자가격리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전남에서도 여수 요양병원 등 동부권을 중심으로 두자릿수 확진자가 연일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성덕고 관련 2명,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련 1명, 제주 769 접촉 관련 1명, 감염경로 미확인 3명 등 모두 7명이 신규 확진돼 누적 2492명을 기록했다. 앞서 8일에도 성덕고 관련 4명, 북구 소재 호프집 관련(격리 해제전) 1명 등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동구 소재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이다.

성덕고 관련 확진자는 현재 24명으로 늘어났다. 학생 14명, 가족 2명, 인근 고교 학생 1명, 대학생 4명, 오락실 업주 1명, 기타 2명 등이다. 자가격리자도 1235명에 이른다. 방역당국은 학교와 확진자 이용 업소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방역 수칙 이행 실태 등을 파악하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광주시는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감염 경로와 접촉자를 조사하고 있다. 또 광산구에 있는 41개 유치원, 24개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1개 특수학교는 11일까지 원격수업을 한다.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도 유흥업소 종사자 6명, 이용자 3명 등 9명으로 늘었다. 128명은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됐다.

전남은 9일 여수 요양병원 내 입원자 집단 감염으로 13명이, 고흥군청 관련 n차 감염에 의해 1명이 확진으로 판명됐다. 이들은 전남 1149~1162번째 확진자로 분류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1150~1162번째 확진자는 앞서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1147번째 환자)가 근무하는 여수 모 재활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입원환자다.

지역 1147번째 감염사례인 요양보호사는 지난달 29일 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정기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이달 6일 채취한 검체는 양성으로 나왔다. 이후 방역당국은 해당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병동 내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벌여 병실 2곳에서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

방역당국은 해당 요양병원에서 현장 위험도 평가를 벌여 의료진·입원자를 동일집단으로 묶어 격리하는 이른바 '코호트 격리' 시행 여부를 검토중이다. 고흥에서는 군청 공공근로자·공직자 관련 n차 감염을 통해 전남 1149번째 환자가 나왔다. 1149번째 환자는 앞서 감염된 1141번째 환자와 지역 내 국밥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고, 밀접 접촉자 대상 검사에서 확진됐다.

한편 전국적으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이날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4명 늘어 누적 12만7309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701명보다 137명 줄면서 700명대로 올라선 지 하루만에 다시 500명대로 떨어졌다.

500명대 기준으로는 지난 7일(525명) 이후 이틀만이다. 그러나 이는 주말 검사건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어서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최근 확진자 발생 양상을 보면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4차 유행'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88명→541명→676명→574명→525명→701명→564명이다. 이 기간 400명대가 1번, 500명대가 4번, 600명대가 1번, 700명대가 1번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9일 오전 여수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가 이뤄진 가운데 방역 당국 관계자가 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 요양병원에서는 8일 요양보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환자 10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연합뉴스

이용섭 시장 "달빛 내륙철도 없이 '국토 거점 2시간대' 실현 요원"

김영록 지사 "한전공대 정부 지원…초강력레이저센터 등 설립"

여야 새 지도부에 지원 요청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7일 광주를 방문한 여야 새 지도부에 광주~대구 '달빛 내륙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지원을 요청했다. 광역단체, 의회, 시민사회에 이어 지역 정치권에도 공감을 확산해 최종 계획 확정까지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찾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국에너지공대 부지를 시찰하고, 전남도 핵심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한전공대가 세계 톱10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국가 대형연구시설인 초강력레이저센터와 인공태양공학연구소 전남도내 설립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날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달빛 내륙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달빛내륙철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협력 대표 공약으로 동서 화합, 국민통합,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사업"이라며 "'전국 주요 거점을 2시간대로 철도로 연결하겠다'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비전도 달빛내륙철도 건설 없이는 실현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특히 "달빛 내륙철도는 특정 지역 민원이 아니라 6개 광역지자체를 경유해 국토 동서축을 횡단하는 국가 기간 철도 인프라"라면서 "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를 극복하고 남부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도 이날 광주 빛그린 산단 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을 방문한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에 지원을 건의했다.

최근 공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달빛 내륙철도가 배제되면서 광주시와 대구시는 물론 경유 예정 지역에서는 최종 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 대구 등 영호남 6개 광역단체장은 최근 경남 거창에서 호소문을 발표한 데 이어 시도의회 의장들도 광주시의회에 모여 달빛 내륙철도 건설을 촉구했다. 광주와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관련한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달빛 내륙철도 건설사업은 4조850억원을 들여 광주와 대구 사이 203.7㎞ 구간을 고속화 철도로 연결해 1시간대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김 지사도 이날 송 대표에게 "지난 3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을 제정하는데 당 차원에서 큰 도움을 줘 세계적인 에너지 공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한국에너지공대를 세계 톱10 공과대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세계적인 에너지산업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산업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한전이 함께 하는 정부 차원의 공동 TF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또 "국가 첨단 과학기술 육성과 기초연구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 대형연구시설인 초강력레이저센터와 인공태양공학연구소 설립을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그린뉴딜 선도사업인 8.2GW 해상풍력사업의 성공을 위해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 제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건의했다.

이밖에도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설립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흑산공항 연내 착공 ▲지방 재정분권 개선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등 중요 현안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한국에너지공대가 세계 TOP10 공과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세계적 기업이나 석학 유치를 위해선 국제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의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5·18 함께 내딛는 새로운 50년

▶1면에서 계속

이외에도 미얀마와의 연대를 위한 행사는 광주 곳곳에서 치러지고 있다. 한국 예술가들은 미얀마 작가들과 함께 미술전시를 열고 시민들은 미얀마 노동자·유학생들과 매주 토요일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진행중이다.

'청년의 시각에서 본 광주와 미얀마', '5·18과 미얀마',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17일)가 열리는가 하면, '미얀마, 홍콩, 세계민주주의 역사와 함께하는 광주'라는 주제로 80년 오월 광주와 2021년 미얀마를 연결하는 연극(17일)도 무대에 오른다. 국회도 오는 11일 미얀마 군사쿠데타 저지 및 민주화운동 지지를 위한 간담회를 연다.

미얀마 시민들도 고마움과 연대를 느끼고 있다.

재한 미얀마 활동가들이 지난 7일 연 간담회에서 활동가 마웅(여·26)씨는 "미얀마의 젊은 친구들은 한국을 동경한다. 5·18의 아픈 과거를 알고있고 광주민주화운동을 롤 모델로 생각한다"면서 "광주시민들의 연대의 손길과 지속적인 응원이 있다면 미얀마도 민주·인권국가가 되는 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야 삽니다 지분 환영
당일처리. 010-8902-7900

경매물건 급매물에 투자
하실 분. 010-3605-5000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가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2)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통로 5층 승강기 有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통로 코너 점포 8간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4) 광주. 북. 문흥동 3층 상가 대 660㎡ 연 2,000㎡ 상업지역
1층점포 10간 매 51억원 (보 5억5천만원 월 2천2백만원 포함)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답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라브즙,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아미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답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온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종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홈플러스 길건너편 동광주빌딩 내

자본감소공고 및 좌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1년 5월 7일 임시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 100,000,000원(총 10,000좌) 중 금 33,000,000원(3,300좌)을 1좌당 113,100원으로 하여 감소하여, 자본금의 총액을 금 67,000,000원으로 감소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 각 사원이 소유하는 좌수에 대하여 감자하는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본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본 회사의 구좌권을 소지하신 분은 위 기간 내에 본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0일
유한회사 광동산업
전라남도 영암군 대불로 771
대표이사 박 영 호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이소원(431122-XXXXXXX) 2021. 1. 24. 사망
• 최후주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79, 103동 608호 (완도군내H1단지아파트)

피상속인 망 이소원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21느단31호, 동 지원 2021느단48호로 각 신청하여 2021년 4월 29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5월 10일

• 상속인 : 1. 윤옥환(520504-XXXXXXX)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79, 103동 608호 (완도군내H1단지아파트)
2. 이현숙(720505-XXXXXXX)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333번길 31, 104동 702호 (신곡동, 대우아파트)
3. 이경민(730214-XXXXXXX)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311, 305호 (민락동, 서희스타힐스센텀프리모)
• 신고기간 : 2021. 5. 11.~2021. 7. 25.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윤옥환의 주소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1년 4월 29일 주주서면결의로 해산 결의 되었으므로, 해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이나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주식회사 에덴상사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53, 20동 112호 (매월동, 광주산업용재유통센터)
청산인 이 경 석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1. 3. 22.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1. 6. 7.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만약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 5. 10.
주식회사 디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2길 15 103호(대치동, 디아이타워)
청산인 임 원 진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1년 3월 31일 조합원총회로 해산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1년 6월 10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5월 10일
한봉산영농조합법인
신안군 지도읍 원자동길 11-160
청산인 최 광 선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

69년을 밝혀온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